

2023. 11. 17.(금) 조간용

이 보도자료는 2023년 11월 16일 오전 11:15부터 보도할 수 있습니다



보도자료

담당부서 : 여성가족정책실 아동담당관

아동담당관	김현미	2133-5162
아동정책팀장	전규영	2133-5163
관광체육국 체육정책과	정현석	2133-2675
체육정책팀장	남규하	2133-2677
문화본부 문화정책과	전재명	2133-2510
문화정책팀장	김정은	2133-2512

관광체육국 체육정책과

문화본부 문화정책과

사진없음 사진있음 쪽수 : 9쪽

[11.19.~25.]

서울시, 올해부터 '서울 어린이 행복주간' 운영...월드컵 결승전에 첫 '어린이 패스트트랙'

- 「서울 어린이행복 프로젝트」의 일환... 어린이 존중문화 확산 축제·행사·캠페인
- 전국 최초로 '어린이 패스트트랙' 시작...고척스카이돔 월드컵경기장 등 시립 체육 문화시설 대상
- 400명 규모 '서울 어린이 꿈 축제'(11.23.)서 오세훈 시장이 행복주간 선포
- 세이브더칠드런, 초록우산과 협력해 음악회·영화제 개최...전시회·SNS캠페인도

서울시가 오는 11월 19일(일)~25일(토) 1주간을 '서울 어린이 행복주간'으로 지정하고, 어린이가 중심이 되고 어린이를 존중하는 문화를 확산하기 위한 다양한 행사와 축제, 캠페인을 대대적으로 펼친다. 초록우산, 세이브더칠드런 등 공익단체도 동참해 어린이 존중문화 확산에 힘을 보탠다.

○ '서울 어린이 행복주간'(11.19~25.)은 오세훈 시장이 올해 5월 발표한 「서울 어린이 행복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올해 최초로 운영한다. 아동학대예방의날(11.19.)과 세계아동의날(11.20.)을 포함하는 일주일 간이다.

- ‘서울 어린이 행복주간’의 주요 내용은 ▲시립 체육·문화시설 ‘어린이 패스트트랙’ 시행 ▲서울 어린이 꿈 축제 ▲어린이 음악회·영화제 ▲어린이권리 전시회 ▲어린이 권리존중 시민참여 SNS 캠페인 ▲아동 학대예방 캠페인 등이다.

- 우선, ‘서울 어린이 행복주간’을 계기로 19일(일)부터 고척스카이돔, 서울월드컵경기장, 한성백제박물관 등 11개 시립 체육·문화시설에서 어린이 동반 관람객을 배려하는 ‘어린이 패스트트랙’을 전국 최초로 추진한다. 올해 시범 운영을 시작해서 개선점을 보완하고 내년에 확대 시행한다.
 - ‘어린이 패스트트랙’은 공공시설 등에서 어린이를 동반하면 긴 줄을 서지 않고 별도의 입구로 빠르게 입장하도록 하는 제도로, 일본에서 시행 중이며 이번에 전국 최초로 서울시가 일부 시립 체육·문화시설부터 시범사업을 시작한다.

- 가장 먼저 이번 주 일요일(19일) 고척스카이돔에서 열리는 ‘롤드컵(리그 오브 레전드, LoL) 결승전’에서 ‘어린이 패스트트랙’이 시범운영된다. 고척스카이돔은 행사장에 별도 게이트를 마련하고 배너를 설치할 예정이다.
 - 장충체육관도 11월 19일(일) 이후 열리는 연말 배구경기에서 ‘어린이 패스트트랙’을 운영한다. 서울월드컵경기장은 25일(토) K리그 수원삼성전부터 전용 게이트를 2개 마련하고, 전용 요원을 배치해서 시범운영을 시작한다. 한성백제박물관은 12월에 열리는 ‘사계콘서트’에서 최초 시행한다.
 - 이밖에도 잠실실내체육관, 목동주경기장, 목동야구장, 잠실야구장, 목동빙상장 등 시립 체육시설 대부분이 참여해서 서울시 주최행사시 시범운영하고, 민간대관 행사 시에도 권고할 예정이다.

- **‘서울 어린이 꿈 축제’**는 23일(목) 서울시청 다목적홀에서 어린이와 가족 4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다. 오세훈 시장이 어린이들과 함께 **‘제1회 서울 어린이 행복주간’**을 선포하고, 3개월 간의 **‘서울 어린이 정책참여단’**의 우수정책 시상식도 열린다.
 - **‘우리가 꿈꾸는 미래 서울 모습’**을 주제로 어린이들이 상상력을 뽐낼 수 있는 코스프레 경연(상상플레이)을 진행하고 현장투표를 통해 우수팀을 선정한다. 아이들이 좋아하는 레크리에이션과 공연, 어린이와 시민가족 등 참여자와 함께하는 마술쇼 같은 다양한 축하공연도 준비되어 있다.

- 또한, 민간 아동복지전문기관인 세이브더칠드런, 초록우산과 협력해 어린이들이 참여할 수 있는 다양한 행사도 준비했다. 20일(월)부터 23일(목)까지 서울시청 지하1층 시민청갤러리에서 **‘어린이권리 전시회’**를 연다. 25일(토)에는 어린이와 가족들이 함께 참여할 수 있는 **‘아이리더 클래식 음악회 및 아동권리 영화제’**를 서울시청 3층 대회의실에서 개최한다.
 - **어린이권리 전시회** : 서울시와 세이브더칠드런이 협력해 추진하며, 어린이가 어른들에게 하고 싶은 말을 담은 30개의 어린이 선언문을 30명의 일러스트 작가가 그린 그림과 함께 전시한다. 별도 신청 없이 현장을 찾은 누구나 무료로 관람할 수 있다. 전시회에는 어린이가 손글씨로 작성할 수 있는 코너도 마련되어 방문한 어린이는 어른들에게 하고 싶은 말을 직접 작성할 수 있고, 그 작성본으로 **‘어린이존중 SNS 캠페인’**에도 참여할 수 있다.
 - **아이리더 클래식 음악회 및 아동권리영화제** : 세이브더칠드런과 초록우산이 힘을 합쳐 협력한 행사로, 초록우산은 **‘아이리더 클래식 음악회’**를, 세이브더칠드런은 **‘아동권리 영화제’**를 준비했다. 행복주간이 마감되는 11

월25일 토요일 오후 2시부터 4시30분까지 어린이 동반가족 약 60명에게 음악회와 영화제를 모두 관람할 수 있는 기회를 선사한다.

- ‘아이리더 클래식 음악회 및 아동권리영화제’는 현재 모집 중이니 관심 있는 시민들은 <https://forms.gle/8cwRyy7p3thRKwfy6>를 통해 지금 바로 신청할 수 있다.(포스터의 QR코드 참조)

□ **‘어린이 권리존중 SNS 캠페인’**도 19일(일)부터 30일(목)까지 운영한다. 어린이가 손글씨로 ‘어른들에게 하고 싶은 말’ 또는 ‘서울시에 하고 싶은 말’을 작성한 후 본인이나 가족의 SNS에 게시하고 증빙사진을 제출하면, 200명을 추첨해서 모바일 문화상품권(1만원권)을 증정한다.

- 어린이가 자유롭게 생각을 표현할 권리가 있음을 되새기고 어린이 목소리를 존중하고 경청하자는 의미를 담은 캠페인으로, 어린이가 작성한 손글씨를 SNS에 게시해서 어린이 존중문화 확산에 동참하였음을 나타내는 증빙사진을 신청사이트에 제출하면 접수가 인정된다.
- ‘어린이 권리존중 SNS 캠페인’은 11월20일에서 23일까지 서울시청 지하1층 시민청갤러리에서 진행되는 ‘어린이권리 전시회’와 연계해 추진된다. 어린이가 보호자와 함께 위의 전시회에 방문해서 현장에서 작성한 후 신청할 경우 당첨률이 커진다.
- SNS 캠페인에 참여를 원하는 시민들은 <https://survey1.ink/KxtKKF>를 통해 11월19일부터 신청할 수 있다. 경품 추첨과 증정은 캠페인이 종료된 후 12월 초에 진행한다.

□ **‘아동학대 예방의 날’(11.19.)을 맞아 ‘아동학대예방 캠페인’(11.13.~25)도 진행한다.** CBS 라디오를 통해 1일 2회 아동학대예방 공익광고를 방송하며, 아동학대예방 홍보 포스터와 리플렛을 제작해 지하철 승강장, 구청, 동주민센터 및 유관기관에 게시할 예정이다.

- 김선순 서울시 여성가족정책실장은 “어린이들은 우리의 미래이며, 서울시가 지속가능한 도시가 되려면 어린이를 최우선으로 여기는 사회 분위기를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며 “올해를 시작으로 매년 11월 ‘서울 어린이 행복주간’을 운영해 어린이들의 꿈과 행복을 지원하고 ‘어린이 퍼스트(First)’ 문화 확산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 붙임 1. 2023 서울어린이행복주간 일정 안내
2. ‘어린이 패스트트랙’ 추진 시립 체육·문화시설(11개소)
 3. ‘아이리더 클래식 음악회 및 아동권리 영화제’ 포스터
 4. ‘어린이 권리존중 SNS 캠페인’ 포스터

서울 어린이 행복주간

11.19 일

11.20 월

11.21 화

11.22 수

11.23 목

11.24 금

11.25 토

아동학대
예방의날

세계
아동의날

서울
어린이
꿈 축제

/ 서울시청
다목적홀

아동권리
음악회
영화제

/ 서울시청
대회의실

어린이권리 전시회 / 시민청 갤러리 B1

어린이 우선입장 패스트트랙 / 시립시설

시민참여 SNS 캠페인 / 경품 증정

아동학대예방 캠페인



아이리더음악회 및 아동권리영화제 신청



어린이 권리존중 SNS 캠페인 신청

연번	시설명	'23년 추진계획
1	잠실실내체육관	- 민간 대관 시 어린이 패스트트랙 안내하고 시행 권고
2	목동주경기장	- 민간 대관 시 어린이 패스트트랙 안내하고 시행 권고
3	목동야구장	- 민간 대관 시 어린이 패스트트랙 안내하고 시행 권고
4	서울월드컵경기장	- 11.25. K리그 축구경기 ‘수원삼성전’부터 시범운영(전용게이트 2개), 게이트별 배너 설치 및 안내요원 배치
5	고척스카이돔	- 11.19. 롤드컵 결승전 행사 시 별도 게이트 마련, 배너 설치하여 시범운영, 민간주최 행사 시 적용 권고
6	장충체육관	- 11.19. 이후 개최하는 연말 배구경기에 적용 (주출입구에 배너 설치)
7	잠실야구장	- 민간 대관 시 어린이 패스트트랙 안내하고 시행 권고
8	효창운동장	- 민간 대관 시 어린이 패스트트랙 안내하고 시행 권고
9	목동빙상장	- 민간 대관 시 어린이 패스트트랙 안내하고 시행 권고
10	한성백제박물관	- 12.2./12.16. 예정인 ‘사계콘서트’에 적용하여 시범 운영 · 어린이 동반가족 우선입장 및 선호석 배정
11	서울시립미술관	- 관람객이 많을 것으로 예상되는 전시회 개최 시 패스트트랙 운영 예정

※ '23년 시범운영 후 '24년 확대 추진

어린이 패스트트랙 안내 배너





2023 서울 어린이 행복주간

아이리더 클래식 음악회 및 아동권리영화제



일시 | 2023.11.25.(토) 14:00~16:30

장소 | 서울시청 3층 대회의실

대상 | 어린이 및 동반가족

내용 | 1부 아이리더 클래식 음악회

- 진행: 이지혜 클래식 해설가 / 악기: 첼로, 피아노, 바이올린

2부 아동권리영화제_ 영화 '한숨' 상영 및 시네아동권리토크

- 패널: 영화 '한숨' 김슬기감독, 신경준 송문중교사,
지구기후팬클럽 어셈블

신청 | QR코드 스캔 후
신청서 작성



동행·매력 특별시서울

SEOUL MY SOUL

서울 어린이 행복주간 기념(11.19~25)

어린이 권리존중 SNS 캠페인

이벤트 기간 2023.11.19.(일) ~ 11.30.(목) 당첨자 발표 2023.12.05.(화)
*당첨자에 의해 개별 안내

어린이가 어른이나 서울시에 하고 싶은 말을 담은 **손글씨 사진**을 SNS에 공개 업로드 후 신청해주세요! (#서울어린이행복주간 해시태그 필수)

어른들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어요!

어린이는 행동이 느리니 기다려주세요
일기나 그림을 허락없이 보지마세요

서울시에 하고 싶은 말이 있어요!

어린이 주변에 나쁜 사람이 없게 해주세요.
장애 어린이에게 편의시설을 많이 만들어 주세요.

* 이벤트 기간 내 다중참여 가능하며, 부모 등 가족 SNS에 게시 가능
* 서울 시청 지하1층 시민청갤러리에서 4일간(11.20~23.) 개최되는 '어린이권리 전시회'에 방문하여 어린이가 직접 작성할 경우 당첨 확률 증가

QR코드를 통해 캠페인 신청화면에 접속하여 어린이 손글씨를 게시한 SNS 링크를 제출해주시면 총 200분을 추정하여 모바일 문화상품권 1만원권을 증정합니다.

유의사항
 * 같은 사진을 업로드하거나 무단 도용시 당첨 제외됩니다.
 * 발표일은 상황에 따라 일부 변동될 수 있습니다.
 * 다양한 사진으로 여러 번 참여 가능하나, 한 번에 1개의 이미지만 제출 가능합니다.